

이웃에게 반하다

- 환경과 사회 문제 솔루션 -

'이웃'과 함께 '환경·사회 문제'를 반으로 나눈다.

3N(김연혁, 이민수, 정현진)

프로젝트 소개

01. 연간 음식물 쓰레기 배출 현황

모닝선데이, 폭증하는 음식물 쓰레기 저감대책 시급하다. 2020. 04. 21.

경제적인 손실액
20조 원 이상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
약 8천억원

온실가스 배출량
885만 톤

“최소 주문 금액 맞추려다 더 많이 주문 시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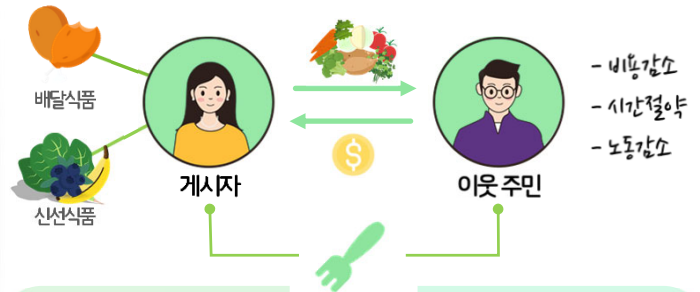


02. 1인가구 증가와 배달 시장 성장 가속화

현재 배달 플랫폼에서 시행중인 '1인분 주문은 배달료가 약 3,000~8,000원 사이의 분포를 보임'

03. 이웃에게 '반'하다

식품 기반 개인 맞춤형 신속 거래 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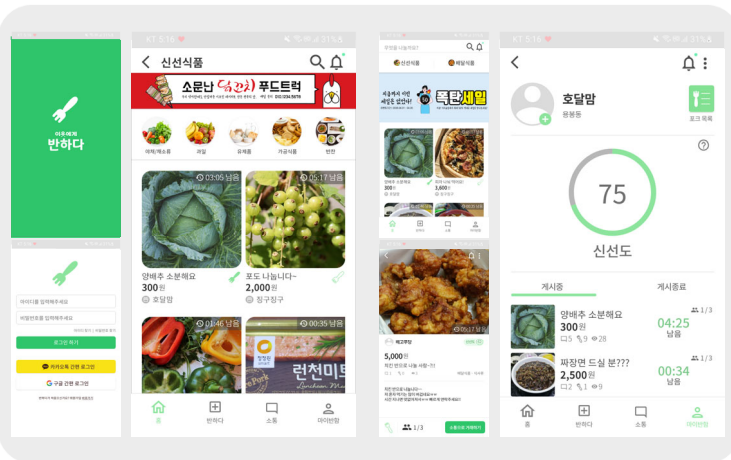
거래 시스템

- 신선식품과 배달식품 기반 거래 플랫폼
- 모든 게시물은 거래 마감 시간을 가짐 (게시자가 게시물에 대한 거래 마감 시간 설정 최대 4시간)
- 게시자는 이웃과 상호 소통을 통해 거래

서비스 차별화

- 본인 거주 아파트 혹은 주택단지 내 거래
- 반하다 이용자는 신선도를 통해 신뢰성 확보 (신선도는 0~100% 범위이며, 신선도에 따라 거래에 제한이 있음)
- 게시자는 거래 이웃 인원수 선택 가능

반하다 어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



반하다 플랫폼 서비스 구조



프로젝트 설명

CLIENT
- ANDROID
WEB SERVER
- FLASK
DATABASE
- MYSQL

기대효과



"이웃에게 반하다."

이웃과 함께 환경과 사회 문제를 반으로 나눈다

01. 해당 플랫폼 이용자의 거래에 따른 시간과 비용, 노동 절감
02. 불필요한 낭비를 최소화하며,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낮춤
03. 중장기적인 이용 관점에서 이웃과의 긍정적인 네트워크 형성
04. 1인가구 등 '최소 주문 금액', '배달 최소 비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 감소
05. 빠른 회전율을 통해 식품 거래 플랫폼 시장 선도와 유리한 점유율 취득
06. 음식물 처리 비용 절감과 규모의 경제 실현, 이용자간 경제적 이득 확보
07.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해충 번식, 유해물질 배출, 온실가스, 수질 오염을 줄임

반하다 수익 구조

- 플랫폼 상단 배너를 통한 광고 수익
- 신선도 회복에 따른 동영상 광고 수익
- 반하다를 통해 환경과 사회적 비용 절감과 이에 따른 플랫폼 경제 가치 증대



반하다 추후 계획

- 아파트/주택단지 등 '이웃 주민 안심 거래 부스' 도입
- 동네 주민과 함께하는 불우이웃 요리 나눔 캠페인 주최
- '오늘은 내가 짜리짜투리 요리사~!' 이벤트 진행

